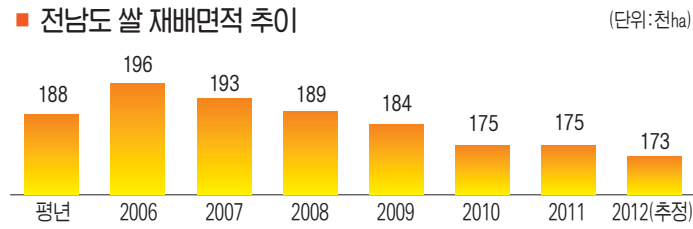


박·문·안 11월 공약 발표 호남 민심은 누가 잡을까



수요 해마다 줄고 재배면적도 급감 “쌀아 米안해”

32년 만의 쌀 생산량 최저치에
상은 태풍 피해도 크지만 구조적
으로 재배면적의 감소 탓도 있다.
쌀 수요는 갈수록 감소하고, 농촌
고령화와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쌀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남도에도 따르면 이 지역 쌀 재
배면적은 올해 17만3000ha인데
이는 평년 재배면적인 18만8000

ha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작
년 벼 재배농가 수는 75만 가구로
전년인 2010년의 77만7000 가구
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전체
농가 수 감소율 1.2%의 3배에 가
깝다.

1인당 쌀을 주식으로 하는 소
비량은 69.8kg으로 전년(71.3kg)
보다 2.1% 감소했다. 주식용 쌀
소비량이 70kg를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쌀 소비량은 1999년
94.8kg에서 2001년 80kg대, 2005
년 70kg대로 하락했고 작년에는
60kg대로 떨어졌다.

쌀을 먹는 양은 갈수록 줄어들
어 10년 후 쌀 소비량이 50kg대
로 진입하면 밥보다 과일을 많이
먹는 꼴이 된다. 1인당 과일 소비
량이 작년 56.8kg에서 올해 57.5
kg으로 늘어난 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60kg대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배면적 감소도 큰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에 쌀 농사
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큰 폭으
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전남지역 51.9%가 65세 이상 노
인만 사는 가구가 된다. 벼 농사
를 짓고 싶어도 일손이 없어 짓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셈이
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와 재배면적 감소, 기후변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국내 식량 자
급률이 역대 최저인 22.6%에 불
과하다”면서 “귀농을 늘리는 다
양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고 농
사를 짓지 않는 유휴농지를 찾아
내 쌀 생산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각 대선 주자 캠프에서 다음 달 초
순까지 지역별 공약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대선 정국에서 제시될 광주·
전남지역의 미래 청사진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활
짝 열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고려, 보다 획기적인 공약 마
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으로부
터 대선 공약집을 제출받은 바 있지
만 기존에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다 새
롭고 획기적인 청사진 마련을 검토하
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 문제에 대
해 이미 수차례 사과했다는 점에서 제
대로 된 공약만 제시한다면 광주·전
남지역에 대한 문 후보의 진정성을 평
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캠프의 판단
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 캠프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의회의 공조 아래, 일자
리 창출 등 보다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형 공약을 이달 말
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각 지역의
'진심 캠프'에서 지역별 공약을 마련
하기로 했다. 특히, 안 후보 캠프에서
는 광주·전남 민심이 후보 단일화 구
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
고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 마련
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 민심과의 소통과
혁신 경제 모드에 맞는 '맞춤형' 공약
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 진심캠프는 15일
운영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약 개
발에 들어갔다. 안 후보 캠프 핵심 관
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 지역별 공
약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1일 대선 공
약 발표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광주·전남을 특화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 화합형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도 광주·전남지역 공약 개발
에 고심하고 있다. 어떠한 공약을 내놓
느냐에 따라 박 후보의 '호남 진정성'
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 캠프에서는 광
주시, 전남도와의 소통은 물론 각계
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업 유치 등을 이룰 수 있
는 정책적인 접근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공보
단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광주·전
남의 민생과 미래는 나아지지 않았
다”며 “실질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건인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수장학회·NLL 대선쟁점 부상

與野 연일 격돌

여야가 '정수장학회' 문제와 '노무
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
기 발언' 논란을 대선의 대형 쟁점으
로 몰고 나가면서 연일 격돌하는 양
상이다.

◇정수장학회=민주당은 15일 정
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17
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면적으로 국
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정수장학회 문
제를 국민과 함께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논의 결과 각 상임위의
국감은 계속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나
름대로 대책을 강구기로 했다”고 말
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들은 이날 서울시 중구 정동 정수장
학회를 향의 방문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캠프
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이날 선
거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최필립 이사장이 '결
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나도 한 몫 해
야 할 것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박 후보 쪽의 말과 정면으로 상충한
다”며 “박 후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
장은 “국감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당
은 국정포기 정당, 문재인 후보는 국
정포기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또 일단 이 문제를 비켜
가면서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
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당 안팎
에서는 박 후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후
보가 ‘나하고 관계없다’는 원론적 말
만 하다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순형 전 선진당 의원
은 “박 후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
더라도 이는 정직에 어긋나는 만
큼,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
면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북방한계선(NLL) 발언=새누리
당은 민주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고
리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
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몰타기 하려는 것

이라며 NLL문제 쟁점화에 당력을 집
중했다.

황우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사
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때
문에 진실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
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노
무현-김정일) 비밀 단독회담의 녹취
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정
원과 통일부는 안다. (양 기관이) 그
것만 밝혀주면 이 문제의 논란은 끝
이 난다”고 말했다.

이인영 선대위원장도 “박 후보의
지지를 정체를 만회하기 위한 조조
합, ‘노크 카운’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
권의 안보 무능을 덮기 위한, 박 후보
주변 인사가 비리와 의혹으로 둘러싸
이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제2의 북
풍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게 맞는 직업은?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2 광주·전라 취업진로박람회' 행사장을 찾
은 학생들이 부스를 돌며 각 직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장물'이 개인 재산이더냐?!

Made in Korea!
22년 직접생산 노하우!

송정인더스트리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63

SongJeong Industry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십시오!

다함 **NAVER** **송정인더스트리** **www.sjblind.com**

공드레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여수시사회적기업

송정인더스트리

90년부터 시작된 송정인더스트리의 꿈! 장애인의 자립!

광주 전남지역 최초복사용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제지사업부	복사용지, 종질지, 신문용지, 친환경용지(A4,A3,B4)	커튼사업부	롤스크린, 블라인드, 천커튼, 무대막, 병원커튼,버티컬 등
-------	----------------------------------	-------	----------------------------------

송정인더스트리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제품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위해 제품을 팝니다.
송정인더스트리는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지역 장애인 40여명이 제품 생산에 참여하여 근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송정인더스트리는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송정인더스트리가 생산한 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송정인더스트리는 22년간 직접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은 업체로 견적상담에서 시공까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구매는
또 다른 나눔입니다.**

구입문의
061)682-5999
주소 | 여주시 소라면 화양로 1951